

경제통상 핫이슈

美 장기국채 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과 미국의 대응

- **지난달 31일 美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역시 4.73%로 상승하며 장기금리 상승세 지속**
 -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회사채·기업대출 등 각종 장기 대출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므로, 국채 금리 상승 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
 -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 연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美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 가중
- **재정적자와 이자비용 상승으로 국채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떠받쳐 줄 전통적 매수 기반은 약화되며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 올해 美 재무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이미 연 1조 달러를 넘어 국방부 연간 예산(8,950억 달러)보다 많으며, 美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10년 뒤엔 세금으로 걷은 돈의 약 4분의 1가량이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
 - 과거 美 국채의 핵심 매수자였던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보유 비중은 2010년대 30%대 중반에서 최근 30% 안팎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공적 부문의 순매도 흐름 지속
- **美 재무부는 장기금리의 추가 급등을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엔화 방어와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등이 거론됨**
 - (엔화 방어) 미국은 지난달 말 일본과 함께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으며, 표면상으로는 엔화 초약세에 대응해 일본을 지원하는 조치지만 월가에서는 美 국채시장 방어가 실제 목적이라는 해석
 - * 일본(정부 및 민간 투자사)은 약 1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최대 美 국채 해외 보유국으로, 엔저 심화로 일본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 美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 유발 가능성
 -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재무부는 8월 5일 국채 발행계획(분기 리펀딩) 발표에서 향후 이표채·변동금리채 발행 방침을 설명하는 표현을 기존 '증가(increases) 검토'에서 '변화(changes) 검토'로 수정하여 장기채 발행을 감축할 여지를 열어둠
 - *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므로, 금리 상승 압력이 집중된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회사채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한 빅테크 등 美 주요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 내년도 빅테크의 설비투자 전망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서며 1년 새 2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은 지속될 전망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3.4% 상승...예상치 부합

- 12일 美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

※ 원문 링크 : [CNBC\(8/12\), Consumer prices rose 0.1% in July, as expected, putting the annual rate at 3.4%](#)

美 7월 고용 2만3천명 감소...실업률은 4.1%로 하락

- 7일 美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3천명 감소해 전문가 예상치 대비 10만명이 줄어들었으며, 실업률은 4.1%로 전월 대비 0.1%p 감소해 실업 감소와 더불어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가 동시에 약화하는 현상 지속

※ 원문 링크 : [CNN\(8/7\), The US economy unexpectedly lost 23,000 jobs last month](#)

미국 올해 재정적자 2조 달러 넘길 듯...팬데믹 제외 역대 최대 규모

- 10일 美 의회예산국(CBO)은 2026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를 2조1,000억 달러로 전망했으며, 이는 GDP의 약 6.6%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임

※ 원문 링크 : [FOX\(8/11\), Federal budget deficit on track to surpass \\$2T this fiscal year as spending outpaces revenue](#)

美, 배터리 재활용 원료·텅스텐 스크랩 1년간 수출 금지 시행

- 6일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8월 27일부터 1년간 텅스텐 스크랩(폐기물)과 배터리 재활용 소재인 블랙매스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국 내 구매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

※ 원문 링크 : [Reuters\(8/6\), Trump admin blocks tungsten, battery waste exports to boost US minerals supply](#)

美 상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 법안 통과

- 7일 美 상원은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상위 5개 구매국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중국과 인도가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입법 성사는 미지수

※ 원문 링크 : [AP\(8/7\), US Senate Passes Russia Sanctions Championed by Graham; US House Next](#)

뉴스 큐레이션

지역·산업 뉴스

스페이스X, 텍사스에 초대형 AI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6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 그라임스 카운티에 1억 평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제조시설 테라팜(Terafab) 건설을 추진하며, 1단계로 168억 달러를 투자해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 원문 링크 : [Office of the Texas Governor\(8/6\), Governor Abbott Announces SpaceX Expansion In Grimes County](#)

한화, 오스탈USA 인수 추진...美 군함 건조거점 확보

-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는 美 현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美 해군·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에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

※ 원문 링크 : [경향신문\(8/11\)](#)

HD현대중공업, 미국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수주...9천560억원 규모

- 10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 코반에너지그룹과 총 1000메가와트, 9560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기반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 원문 링크 : [연합뉴스\(8/10\)](#)

美 텍사스 퍼미안 분지, AI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

-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美 전역에서 전력·용수 부담과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넓은 토지와 풍부한 에너지를 갖춘 유전 지대인 텍사스 퍼미안 분지가 새로운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

※ 원문 링크 : [The Wall Street Journal\(8/9\),Data-Center Backlash Leads to New Land Rush in Texas Oil Patch](#)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팸 첫 인턴십 모집...파운드리 증설 속도전

-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 텍사스 테일러팸 1공장 가동 및 2공장 착공을 앞두고 첫 인턴십과 신입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는 등 미국 내 반도체 인력난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본격 착수

※ 원문 링크 : [연합뉴스\(8/9\)](#)

보고서 톺아보기

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32조 조치 발표

* 한국무역협회, <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32조 조치 발표> (2026.8.10)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지난 8월 6일 美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 발표**
 -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의 93.2%, 태양광 셀의 90.1%, 태양광 모듈의 86.4%를 차지('24년 기준)
 - 금번 조치는 제3국을 통한 중국계 기업의 우회수출을 규제해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보호·확충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됨
- **주요 내용은 최저수입가격제 도입과 15% 추가 관세 부과임**
 - (①최저수입가격제)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해 미국 내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요건 미충족 시 최저수입가격 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
 - (②파생제품 관세) 태양광 셀·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제와 함께 15%의 관세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대만·EU·일본 등 무역합의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관세(MFN)와 232조 관세를 합산해 총 15% 상한 적용
 - (③대미 투자기업 관세 감면)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개보수 추진 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생산장비 및 대상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면제 혜택 부여 가능
 - (④ 조치 전 사재기 방지) 조치가 120일 후 시행되는 만큼, 상무부는 시행 전 재고 비축을 위해 과도한 선수입이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계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축소되어 경쟁력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
 - (폴리실리콘) 미국 내 생산능력이 전 세계의 2% 미만에 불과해 수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저수입가격제 도입으로 미국 내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되면 현지 제조사 및 대미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 기대
 - (태양광 셀·모듈)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입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결정력 제고 및 수주여건 개선 전망
- **미국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계 제품이 유럽·중남미·중동 등 제3국으로 유입되고, 이에 대응해 주요국의 보호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 지역 이름을 내 아이 이름으로, 미국의 지명 소비 방식

5월에 네바다 주 리노(Reno)에 학회가 있어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참석했다. 그 때 근처에 있는 타호 호수(Lake Tahoe)와 세콰이어 국립공원(Sequoia National Park)을 다녀왔다. 아름답고 깨끗한 타호 호수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큰 나무들과 트레일은 바쁜 삶을 이어가던 우리 가족에게 평화로움과 기쁨을 주었다. 출장에서 돌아오고 난 후, 운전 중 첫째가 소리쳤다. ‘아빠, 타호랑 세콰이어가 저기 있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눈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두 차량 중 왼쪽은 쉐보레 사의 타호(Tahoe), 오른쪽은 도요타 사의 세콰이어(Sequoia)였다. 두 차량 모두 광활한 미국의 도로와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대형 SUV들이다. 왜 이런 이름들을 자동차에 붙이는 것일까? 평소 생각했던 바를 아이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이를 이번 기고문의 주제로 삼아보려 한다.



김창희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Visiting Scholar,
Texas Christian University
Neeley School of Business)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이름 짓기(Naming) 문화를 살펴보면 지명을 자녀의 이름으로 삼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오스틴(Austin), 사바나(Savannah), 브루클린(Brooklyn) 같은 도시 이름이 대표적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샬럿(Charlotte)이나 조지아(Georgia), 버지니아(Virginia), 매디슨(Madison)처럼 역사적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해 도시나 주(State)의 이름이 되었다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 아이들의 이름으로 환원된 흥미로운 가치 순환 사례들도 넘쳐난다.

경영학 관점에서 이는 ‘브랜드 자산의 전이(Brand Equity Transfer)’와 ‘최적 차별성 이론(Optimal Distinctiveness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며 그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듯, 부모는 장소가 지닌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과 페르소나를 자녀에게 이식하고자 한다. 힙한 IT 도시 오스틴, 고풍스러운 남부의 전통 사바나, 예술적 감성의 브루클린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자녀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완전히 새로 지어낸 이름이 주는 사회적 이질감은 피하면서도(동질화), 흔한 이름 속에서 신선한 개성(차별화)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지명 네이밍’이라는 최적의 절충점을 찾아낸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특히 자동차 업계야말로 이 지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뒤지는 마케팅 플레이어라는 점이다. 쉘보레 말리부(Malibu)와 타호(Tahoe), 도요타 시에나(Sienna)와 타코마(Tacoma), 현대 싼타페(SantaFe)와 투싼(Tucson), 기아 소렌토(Sorento)와 텔루라이드(Telluride) 등 세계 각지의 지명을 품은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지명을 쓰는 방식과 기업이 자동차에 지명을 붙이는 방식은 그 ‘결(Texture)’이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는 두 주체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의 지향점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이름이 되는 장소는 대개 문화와 삶의 밀도가 높은 ‘커뮤니티’ 중심이다. 반면 자동차의 이름이 되는 장소는 인간이 극복하고 달려야 할 ‘거칠고 웅장한 대자연(Landscape)’이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호화 휴양지’다. 음성학적으로도 사람 이름은 사바나, 브루클린처럼 부드러운 유음과 마찰음 위주로 구성되어 친근함과 관계성을 지향하지만, 자동차 이름은 타호, 투싼, 타코마처럼 강한 파열음과 마찰음을 전면 배치해 차량의 역동성과 내구성을 과시한다. 심지어 지명이 아닌 일반명사를 사용하더라도, 쉘보레 서버번(Suburban)처럼 미국 중산층이 동경하는 ‘교외 주거지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공간적 가치를 제품에 이식한다. 요컨대 인간은 공간을 통해 ‘관계와 소속감(Belonging)’을 구하고, 기업은 공간을 빌려 ‘성과와 동경(Aspiration)’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한국에서는 아이 이름을 ‘종로’나 ‘해운대’로 짓지 않으며, 자동차 이름에 ‘판교’나 ‘대전’을 쓰지 않을까? 본질적인 이유는 두 나라가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미국인들에게 지명이 뚜렷한 캐릭터를 가진 ‘라이프스타일’의 영역이라면, 한국인들에게 지명은 ‘부동산적 가치와 행정 구역’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만약 아이나 자동차의 이름에 특정 지명을 붙인다면, 그 공간이 가진 아름다운 감성이나 서사보다는 평당 아파트 가격이나 자산의 서열화된 계급이 먼저 연상되기 십상이다. 지명이 지나치게 ‘자산 가치’로만 박제되어 있다 보니, 순수한 정체성의 도구로 소비하기엔 사회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미국 리노 학회 출장길의 일상적 관찰에서 시작된 이름 짓기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네이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브랜딩 행위다. 그리고 성공적인 브랜딩은 언제나 그 대상이 지닌 무형의 가치와 스토리에서 출발한다. 눈앞의 숫자가 아닌, 공간이 수백 년간 쌓아온 ‘장소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 정교한 마케팅의 지혜를 독자들도 한 번쯤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8월 3일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Manufacturing PMI)	55.6	54.0	53.3
↳ 7월 제조업 PMI는 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미국 제조업의 확장세 반영				
8월 6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WoW)	199K	202K	198K
↳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3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하며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확인				
8월 7일	7월 실업률(Unemployment Rate)	4.1%	4.2%	4.2%
↳ 7월 미국의 실업률은 4.1%,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월 대비 각각 0.1%p 하락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로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하며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고조되며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세

구분	08.11	07.28	2W(% ,bp)	07.14	1M(% ,bp)	25.12.31	YTD(% ,bp)
S&P500	7,728.2	7,428.8	+4.03	7,543.6	+2.45	6,845.5	+12.89
국채 2년	4.22	4.28	-5.90	4.19	+2.50	3.47	+74.90
국채 10년	4.68	4.60	+8.00	4.58	+10.20	4.15	+53.1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 진전 기대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평화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고 선박 피격이 지속되며 상승세로 전환

구분	08.11	07.28	2W(%)	07.14	1M(%)	25.12.31	YTD(%)
Dubai	88.99	78.59	+13.23	83.20	+6.96	61.59	+44.49
Brent	88.91	84.09	+5.73	84.73	+4.93	60.85	+46.11
WTI	83.20	79.26	+4.97	79.34	+4.87	57.42	+44.90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와 반도체 업종의 외화 유입이 이어지며 원화는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미·일 정부의 공동 개입 발표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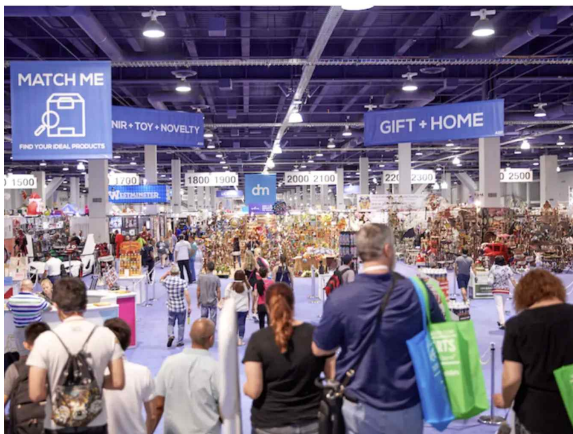
구분	08.11	07.28	2W(%)	07.14	1M(%)	25.12.31	YTD(%)
USD/KRW	1,411.7	1,453.1	-2.85	1,489.3	-5.21	1,440.6	-2.01
USD/JPY	159.3	163.9	-2.79	162.3	-1.83	156.7	+1.67
USD/CNH	6.746	6.771	-0.36	6.774	-0.41	6.976	-3.30
EUR/USD	1.154	1.139	+1.37	1.142	+1.08	1.175	-1.73
달러인덱스	99.83	101.42	-1.57	100.92	-1.08	98.32	+1.54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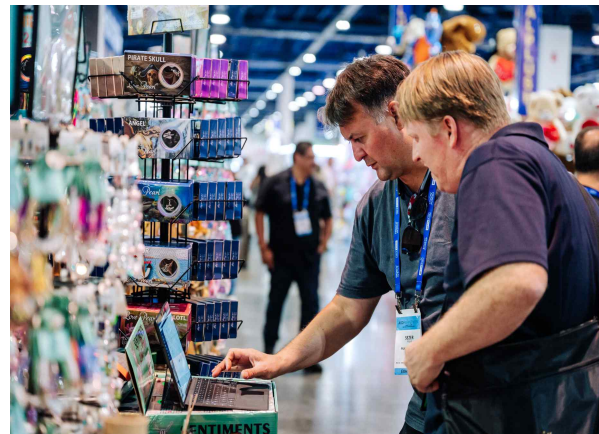
행사 알리미

한국무역협회, 라스베이거스 ASD Market Week 2026 충북공동관 운영

-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ASD Market Week 2026에 충북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
 - ASD Market Week는 1961년 시작되어 65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최대 규모의 종합 소비재·유통 박람회로, 80개국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3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B2B 전문 행사임
 -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충북공동관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김·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취급하는 국내 6개 기업이 참가하며, 델러스지부는 이들 기업과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 등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
- 전시회 정보 안내
 - 전시명 : ASD Market Week 2026
 - 기 간 : 2026년 8월 25일(화) ~ 27일(목)
 - 장 소 : Las Vegas Convention Center, North & Central Halls
 - 충북공동관 위치 : North홀 (부스 N21326~N21328, N21426~N21428)



〈2025년 전시장 전경〉



〈2025년 전시장 참관객〉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K I T A
KITA Dallas Center

5700 Granite Pkwy, Suite 402, Plano, TX 75024

☎ 469-409-1004 ✉ newsline@kita.net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델러스 지부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KITA Dallas Center. All rights reserved.